

2012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10.22(월) 17:00~18:00시

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생중계 보도 방식 개선해야

- 국방부 장관 사과 생중계에서 뉴스Y는 구도가 나쁘고 오디오는 방송 사고 수준. 오디오는 경쟁사보다 5~6초 정도 늦어(박영상 위원장, 한박무 위원)
- 문재인 후보 강연 생중계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단순히 생중계를 연결하다 중간에 끊어. 이는 방송의 브랜드 가치와 연결되는 문제(한박무 위원)
- 대선으로 인해 라이브를 자주 물리는 것은 공정방송 시비(일방적인 홍보)에 말려 들 수 있어. 라이브 방송 선별해야(한박무 위원)
- 앵커와 현장화면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앵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료 화면이 나가는 등 부자연스러운 진행은 개선해야(최종준 위원)

▲(속보)자막 및 자료 영상 등 신중하게 내보내야

- "창작뮤지컬 '빨래'...'위로의 힘'"이라는 자막에 중간에 점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로 서로 다른 내용일 경우에 하는 표시임(한박무 위원)
- 대선 주자 관련 뉴스 중 '롯데 플레이오프 진출' 자막, 일본 전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도시 '이한구 후보 비서진 사실상 사퇴촉구' 자막 내보내. 속보지만 보도 중인 뉴스와 매치 고려해야(이석구 위원, 차경애 위원)
- 특보의 경우 '뉴스특보'라는 표기 없이 붉은색 배경으로만 표현해 시청자들이 특보임을 인지하기가 어려움(최종준 위원)
- '옴부즈맨Y' 경우 다양한 시청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반복 나열돼 집중에 방해.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면 이해에 도움(차경애 위원)

▲ 이슈 이끌 수 있는 대선 관련 보도해야

- 뉴스Y도 대선 주자 또는 선대 위원장 등 TV 토론 계획해야(홍승용 위원)
- 세 대선 주자가 사람 뺏기 경쟁을 하고 있음. 각 당과 성향이 맞는지 캠프에 갈 때는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보도해 유도해야(이상목 위원)
- 대선 관련 기획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후보의 동선이나 이슈에만 따라가 보도 이슈가 비슷하고 정책적인 것은 보지 않음(임상혁 위원)
- '고성국의 담담타타'와 '신율의 정정당당'의 포맷 비슷해. 한 쪽에 치우친 성향으로 알려진 진행자가 진행하는 것은 우려돼 (임상혁 위원)
- 방송사마다 출연하는 정치 평론가가 겹치는 경우가 많음. 정치 평론가로 새로운 사람들을 개발해 출연시켜야(박영상 위원장)

- 공약이 정리돼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욕구와 기대를 수렴하면서 선도적으로 주요 공약 이슈를 선 의제화해야(김경모 위원)
- 선거 이슈에 대해 언론사 입장에서 논평하는 코너 신설 고려해야(김경모 위원)
- 대선 주자의 추문 들추기 같은 네거티브 요소를 단순 보도가 아닌 시민의 정치 정보 습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해석해야(김경모 위원)
- 각 후보의 주요 정책이나 공약별로 관련 당사자(선거 캠프의 활동가 등)와 인터뷰 등을 하는 것이 좋아. 이후에는 유권자를 위해 상대 후보 관련 당사자가 비판 및 평가하는 인터뷰를 배치해야(김경모 위원)

▲ 용어 사용, 인터뷰 등 보도 방식 개선해야

- 방송 용어 표현 주의해야. "갑론을박이 한창이다"가 아닌 "하고 있다"로 "기준치 이하를 밑돌았다"는 "이하"를 빼야. "고위직 자녀들 병역 면제"는 "자제"로 고쳐야(김정연 위원)
- '출근길인터뷰'에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음. 이럴 때는 진행자가 다시 물어야(김정연 위원)
- 검경 갈등의 희생양으로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언론들은 생매장시켜놨. 이와 같은 보도 행태를 개선하고 후속보도해야(임영호 위원)
- 메인 뉴스에도 중요한 글로벌 국제뉴스를 선정해 보도했으면(이석구 위원)
- '파출소 분신' 등 사고의 보도에서 실제 사고 장면의 노출은 시청자의 거부감과 모방범죄 불러일으켜(최종준 위원)
- 스포츠 보도의 경우 유망선수나 비인기종목을 좀 더 조망해야(최종준 위원)
- 뉴스 시작 전 전체 기사 간략히 볼 수 있는 인트로 삽입 필요(최종준 위원)
-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보도 적어. 국내 종합스포츠대회 보도 늘려야(최종준 위원)
- '노효동의 대선상황실'의 효과음이 크고 빨라서 앵커 목소리 방해(최종준 위원)
- 건강정보, 생활정보 등 실질적 정보 제공하는 프로그램 마련돼야(최종준 위원)
- '출근길 인터뷰' 재방송의 경우 응답자의 멘트가 화면 우측에 나온다면 응답자의 생각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어(차경애 위원)
- 이슈를 만들지 않고 현상만 좇고 있는데 이슈를 만들어야(박영상 위원장)
-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 수 없음. 뉴스가 매몰되고 있어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Y가 해외 큰 이슈인 곡물 위기 관련해 특집을 기획해야(홍승용 위원)

▲ 긍정적인 평가

- '뉴스1번지'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관련 뉴스를 제작 방송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해(김경모 위원)
- '노효동의 대선상황실' 내용과 표현력 좋아. 스타급 기자 기대(김정연 위원)
- '대선상황실'의 '전략이 보인다'에서 후보간의 동선과 일정 비교 분석, 선거전략과 중점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(차경애 위원)

- '선택 2012 정치권분석'에서 후보의 행보와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변화까지 보여주는 맹찬형 기자의 말끔한 정리가 돋보여(차경애 위원)
- 박상병 시사평론가의 대선출마 발표 전후 지지율 비교 분석, 인터뷰 카메라 구도, 자료화면, 캡션처리 등이 고도의 정보성을 보여줌(차경애 위원)
- '출근길인터뷰'의 내용과 현장성은 늘 새로워(차경애 위원)
- 8일자 철암 단풍축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좋아(차경애 위원)
- 병의 징후, 문제점을 환자와 의사 인터뷰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알권리와 건강보호 권리를 존중한 것은 좋아. 소비자보호 뉴스 늘려야(차경애 위원)
- 자막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뀐 것은 잘해. 가독성 좋아(임영호 위원)
- 경기경찰청장 공판 취재 관련해 뉴스Y 카메라 기자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쫓아와. 두 사람이 나와 있어서 열정에 놀라(임영호 위원)
- 종편과 비교시 뉴스Y의 싸이 공연 풀 생중계는 매우 인상 깊어(임상혁 위원)
- 추석 때 전국 교통 현황을 방영한 것은 좋아(박영상 위원장)
- '출근길인터뷰', '비즈톡톡' 등의 전문가 출연은 시청자에게 유익해(최종준 위원)

▲ 기타

- 장애인 등의 소수 계층을 위한 뉴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다음 회의 때는 회사 측 계획을 이야기해주기 바람(이석구 위원)
-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정보와 보도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배치하기를 희망(김경모 위원)
- 뉴스 이외에 그날의 주제나 출연자 등을 편성표에 기입 필요(최종준 위원)
-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다시보기 기능 제공 필요(최종준 위원)
-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게시판 개설 등 쌍방향 소통 노력 필요(최종준 위원)